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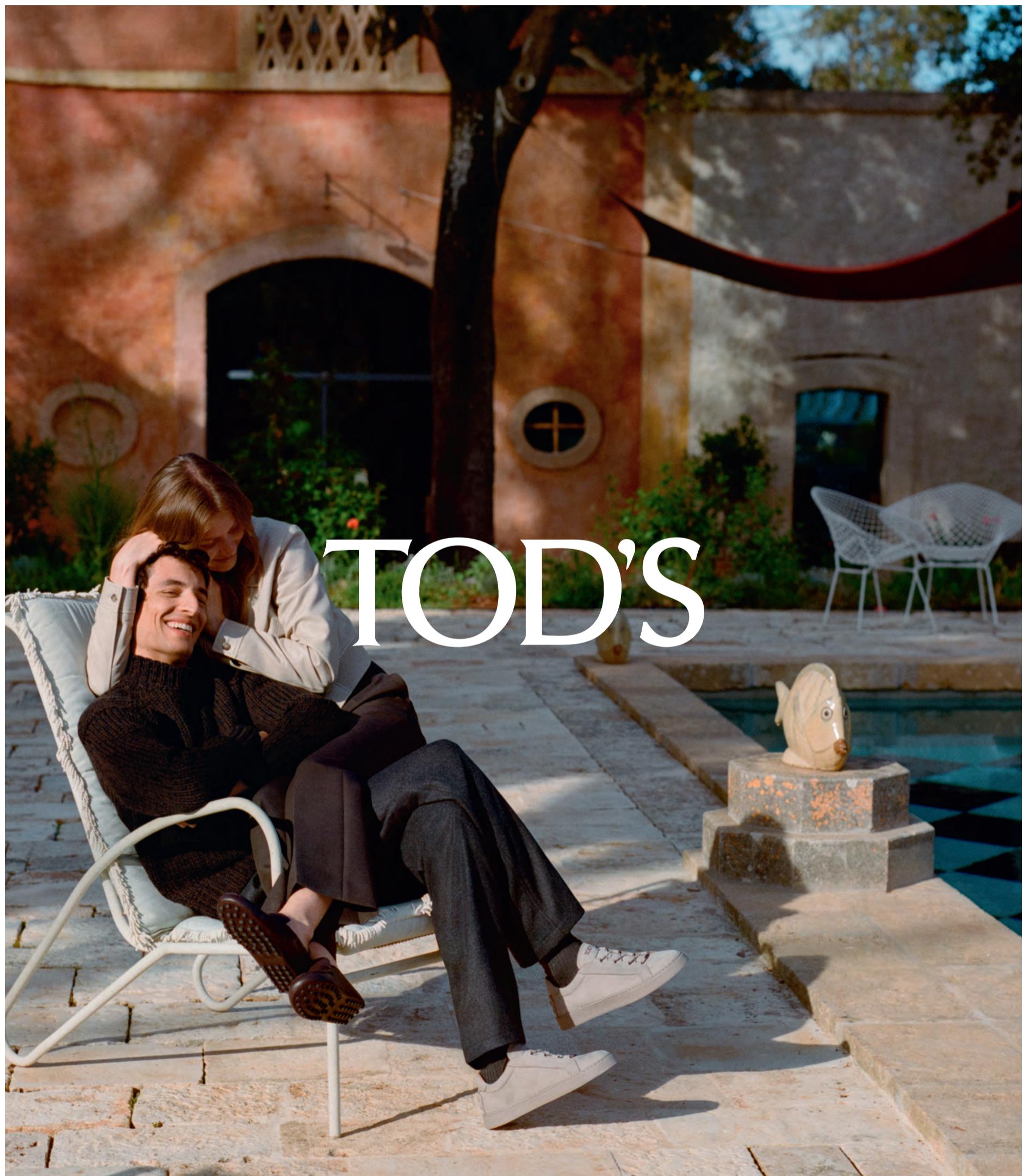
September 2025
vol. 291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FW New Bags

TOD'S



CHANEL

HIGH JEWELRY

COLLECTION N°5

샤넬 화인 주얼리에서 대담한 기술력과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결합이라는 창의적 표현이 담긴 55.55 네크리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네크리스는 N°5 향수병의 모든 코드를 재현한 디자인으로, 55.55캐럿이라는 인상적인 무게로 커팅 된 다이아몬드가 가운데 위치하며 700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탐색하는 일. 더 크고 무거운 원석을 찾기보다 완벽한 웰리티의 스톤을 찾는 것,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법입니다.

이 특별한 작품은 이제 샤넬 하우스의 유산 속에 남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 시킵니다.
샤넬의 창작물은 영원하다는 것을.



N°5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55.55캐럿 에메랄드 컷 DFL Type IIa 다이아몬드.

CELINE

CELINE.COM





my little secret



SEAMASTER #AQUATERRA 30 MM
Co-Axial Master Chronometer

Ω
OMEGA

Contents

SEPTEMBER 2025 / ISSUE.291

10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2_SELECTION 1 베건디, 올리브 톤 등이 조화를 이루는 그녀의 가을 스타일링

13_TRULY PURE 그 어떤 유색 보석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다이아몬드의 품격

14_SELECTION 2 니트, 울, 스웨이드 같은 소재로 가을 무드를 배가하는 맨즈 셀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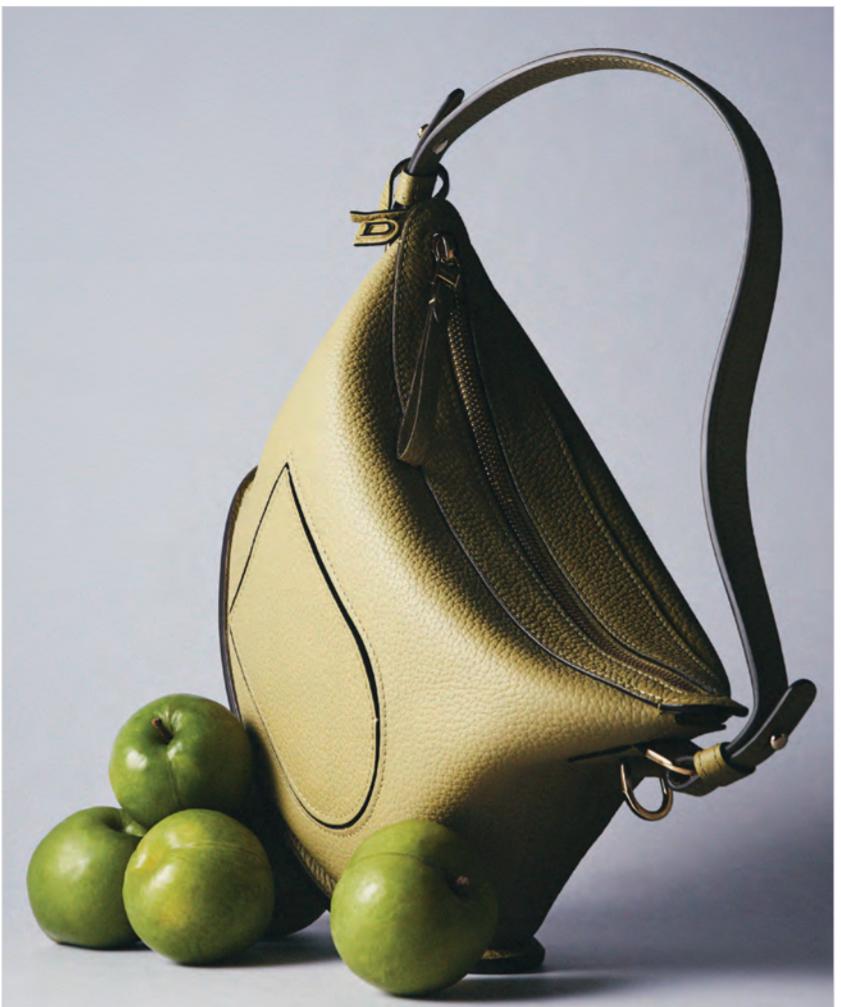
15_PERFECT HARMONY 스틸과 골드가 만나 더 특별해진 커비 워치 셀렉션

16_‘공예다운’ 것, 태도의 가치에 관하여 ‘카야프리즈’ 기간 펼쳐진 프로그램 중 공예 관련 기획전과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통해 살펴본 오늘의 공예

17_지구의 내일을 사랑하는 법, ‘세상 찾기’ 공예로 ‘세상 찾기’를 보여주는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청주 문화제조창 본관, 11월 29일까지)가 개막했다.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세상을 찾는 공예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18_잃어버린 흔적을 찾아서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8명이 올해 청주공예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인도 국립공예박물관, 7월 영국 휴트워스 미술관으로 순회 전시를 가진다. 그 가운데 한국 작가로 선정된 고소미 작가를奕하가는 우리의 전통 소재가 가득한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19_안토니 곤리와 ‘동물의 신화’ 안토니 곤리(Antony Gormley)는 신체를 단순히 인간적 자율성의 표지로만 보지 않고, 우주적 질서와 연



36



18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가 2025~26 프리풀 시즌 광고 캠페인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Puglia) 지역의 유서 깊은 빌라 쿠루치(Villa Colucci)를 배경으로 이탈리아 특유의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담아냈다. 문의 02-3448-8233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험하게 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kr



결된 ‘동물적 매개체’로 이해한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도시 문명에서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실험인 동시에, 몸을 통해 다시금 자연과 우주의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20_ADVANCED INNOVATION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가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았다. 혁신과 전통의 공존이라는 긴 서사시를 썼던 오데마 피게의 시간을 신제품을 통해 재조명한다.

22_KING OF DIAMONDS 반세기 동안 주얼리를 향한 천사를 담아온 그라프(GRAFF)의 창의성과 더불어 늘 새로운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행로를 되돌아본다.

24_A LEGACY OF FLOWERS 늘 자연의 생명력에 매혹되어온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스코틀랜드의 플라워 가든에서 열린 특별한 이벤트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이 주얼리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26_GET THE LIST 품격 있는 가을을 보내는 가장 이로운 쇼핑

28_MOVE BEYOND 스타일을 완성하는 순간. 이번 시즌 최고의 파트너, 뉴 잇(i) 백 셀렉션.

36_NEW SEASON, NEW ESSENCE 계절의 변화 앞에서 마주한 F/W 백 & 슈즈.

44_DESIRE OF AUTUMN 농밀하고 강렬하다. 짙게 배어든 빛 사이로 드려난 형형색색의 가을 향.

45_‘빛의 도시’에서 반짝이는 이탈리아 감성 한층 더 근사해진 파리 도심의 호텔 풍경 중에는 2021년 말 ‘파리의 동백’으로 불리는 8구센강 오른쪽에 우아하게 등을 틀 불가리 호텔 파리(Bulgari Hotel Paris)가 있다.

46_EDITOR'S PICK 계절의 변화가 시작된 지금, 완벽한 뷰티 큐레이션을 제안한다.



12

28



GRAFF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티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Blue Luxe

파네라이는 기구 박람회 '살로네 엘 모발레'의 공식 타임키퍼로 복귀하며, 이 행사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루미노르 GMT 파워 리저버 세리미카 PAM01574'를 출시했다. 44mm 블랙 세라믹 케이스에 은은하게 반사되는 블루 선브러시 마이얼, 5시 방향에 위치한 파워 리저버 인디케이터와 3시 방향에 자리한 날짜창에서 브랜드 고유의 대담한 미학이 느껴진다. 또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X2로 코팅된 시침과 분침은 시인성을 높여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돋는다. 고급스러운 블루 앤디가죽 스트랩은 캐주얼한 블루 러버 스트랩으로 호환 가능하니 원하는 스тай일에 맞춰 활용해보자. 가격 미정. 문의 1670-1936



Rebirth of 'Luggage'

셀린느의 러기지 백이 '뉴 러기지 백'으로 휴깅계 돌아왔다. 러기지 백은 2010년 피비 파일로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브랜드 창립자 셀린느 비파이너가 디자인한 미스트리 백의 물결 모양에서 영감받아 유려하면서도 단단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하우스 역사상 핵심 디자인으로 손꼽히며 지금까지 명실공히 아이코닉한 백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과감한 오버사이즈 형태로 재탄생했으며, 종전보다 더 부드럽고 가벼운 가죽을 사용해 유연한 실루엣을 강조했다. 특히 가방 전면에 자리한 지퍼 포켓은 웃는 얼굴을 형상화해 위트 있는 요소를 엿볼 수 있다. 총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어 9월 1일부터 프리 룬칭을 통해 '뉴 러기지 백'의 일부를 먼저 만나볼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1577-8841



For the Queen

2백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시옹 하이 주얼리 소메의 조세핀(Joséphine) 컬렉션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첫 왕후 이름을 따 아이코닉한 컬렉션 중 하나다. 이 컬렉션의 상징적인 V 세이프의 아그리피 모티브를 재해석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조세핀 네크리스를 소개한다. 우아한 곡선과 날렵한 세이프가 세련된 모습을 자랑하며, 레이스를 연상시킬 정도로 정교하게 세팅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오픈워크로 세팅해 풍부한 빛과 질감을 더했다. 문의 1670-1180

Dive into Orange

오메가 다이빙 워치 하면 떠오르는 시그너처 컬러가 있다. 바로 오렌지. 최근에는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컬렉션에 새로운 메시 브레이슬릿을 적용하고 둥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옥살릭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베젤 등을 도입하며 전면적인 개편을 거쳤다. 더불어 블랙과 오렌지 컬러를 통해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 지름 42mm 케이스로 완성하고 블랙 알루미늄 다이얼과 로듐 도금 스켈레톤 헌즈,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등으로 구성해 다이버 워치의 감성을 물씬 풍기며, 중앙 초침에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 클래스프를 더한 브레이시드 메시 브레이슬릿 또는 폴드오버 클래스프가 달린 통합형 오렌지 라버 스트랩으로 출시하며,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캘리버 8806으로 구동한다. 문의 02-6905-3301



Modern Motion

토즈가 2025 F/W 시즌을 맞아 T-마라톤 스니커즈(T-Marathon Sneakers)를 공개했다. 고니니 로퍼의 세련된 감성과 스포티한 디자인을 결합해 풋살화에서 영감을 얻은 로 컷 실루엣과 새로운 밀착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 킥 스킨 레더와 스웨이드 바전으로 출시되며, 어퍼 툭(tongue)은 자석 디테일로 페달 가능하다. 나파 레더 스트랩과 로고 디테일로 브랜드의 미학을 더하고, 스트로벨 공법을 적용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다. 여성 모델도 함께 선보여 커플 슈즈로 즐길 수 있으며, 일부 매장과 온라인(tods.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Heritage Reimagined

랄프 로렌 컬렉션의 RL 888 라인은 뉴욕 매디슨 애비뉴 888번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영감을 받아 랠프 로렌이 추구하는 유산과 현대적 세련미를 담아낸 상징적인 라인이다. 2025 프리풀 시즌에는 카프 스웨이드 미니 토트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낙낙한 내부 공간과 조절형 핸들, 새롭게 디자인된 'RL' 모노그램 하드웨어 참으로 세련된 디테일을 완성했다. 이탈리아 장인들이 풀 그레이 카프 스웨이드 보디와 스클립 스웨이드 안감으로 제작해 부드러운 텍스처와 실루엣을 자랑한다. 최고급 소재와 실용성을 갖춘 RL 888 미니 토트백은 우아한 데일리 백으로 추천한다. 2백70만원대. 문의 02-3467-6560



Chain Reaction

연결과 엮임이 신사하는 스타일리시한 체인 주얼리 컬렉션. '(위부터 차례대로) 디올 파인주얼리 길통 디올 링 다이아몬드와 플라워 모티브 디자인' 특징.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그라프 스파이럴 컬렉션 링 파베 다이아몬드 로즈 골드 밴드, 꼭신이 아래 눈부신 반짝임을 선사한다. 9백72만원. 문의 02-2150-2320 포페 샹스 인피니 링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 33개를 더한 아로고 디자인. 6백73만원대. 문의 02-514-3721 포페 에센셜 플레스잇 링 엘로 골드 소재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신축성이 있다. 4백75만원대. 문의 02-6905-3345 티파니 티파니 하드웨어 스몰 링크 링 18K 엘로 골드에 핸드 세팅된 다이아몬드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포토그래피 윤지영 에디터 신정임



Not Just a Bag

상상을 뛰어넘는 재치로 무장한 요즘 백.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마일 이모티콘이 연상되는 스마일리 백 2백93만원대 모스키노. 문의 02-4792-4144. 아이섀도 팔레트가 연상되는 디자인이 특징인 이브닝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랍스터를 모티브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짐개와 고리 등 디테일이 돋보이는 윤지영 인던 에디터 김보민.

NEW STORE





for him Selection

브라운과 베이지 컬러 팔레트에 니트, 아가일 같은 가을 소재와 패턴을 가미했다.

클래식한 무드를 배가하는 맨즈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MIN YOUNG, YOON JIYOUNG

4개의 카드 포켓으로 구성해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벨ен 카드 케이스. 10x75x0.5cm, 16만원 투미.

다이아몬드 장식의 블랙 제이드가 돋보이는 그랜데 유이 네크리스 1천3백65만원 키린.

브라운 컬러의 베이비 캐시미어 레옹 헛 1백만원대 로로피아나.

테일러드 워크웨어 재킷 5백만원대 푸이비통.

메리노 울 100% 아가일 자카드 베스트 2백만원대 푸이비통.

화이트·핑크 골드와 브라운 PVD 가조화를 이루는 코트로 클래식 다이아몬드 스몰 볼格外 5백만원대 부쉐론.

그레이 앤디케이터 가죽 스트랩의 트래디셔널 매뉴얼 와인딩 38mm 4천7백만원 바쉐론 콘스탄틴.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더해 단독으로 활동하는 좋은 그라프 이터니티 팀 4백만원대 그라프.

코튼 소재의 개바인 팬츠 가격 1백51만원 롤클렉션.

펜디 백을 들고 있는 귀여운 패펫 모티브의 참 1백만원대 펜디.

벨트가 달린 카프 스키 버클 백, 48x34x18cm, 1천만원대 프라다.

고대 로마의 클로세울에서 영감받아 독특한 나선형 디자인의 비제로원링 가격 4백69만원 불가리.

투미 02-539-8160 키린 02-6905-3453 로로피아나 02-6200-7799 부쉐론 042-607-8193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루이비통 02-3432-1854 몽클레어 컬렉션 0030-8321-0794 케이블 아이웨어 02-517-6060 그라프 02-2256-6810 토즈 02-3438-6008 불가리 02-6105-2120 펜디 02-544-1925 란프 로렌 퍼플 라벨 02-3486-6235 프라다 02-3442-1831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철머스 베니시드 카프 스키 페니 로퍼 1백30만원대 펄프 로먼 퍼플 라벨.

에디터 신정임 스타일리스트 임현정





'공예다운' 것, 태도의 가치에 관하여

"공예가의 예술은 사람과 세계 사이의 끈이다." —플로렌스 디벨 바틀릿(Florence Dibell Bartlett)

● 키아프 서울(Kiaf SEOUL)과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개막을 앞두고 온갖 행사가 줄지어 열린 9월 첫째 주를 밀도 높은 파도처럼 휩쓸고 지나간 '아트 워크'. 이 화려하고 시끌벅적했던 주간을 수놓은 다크로운 프로그램을 유심히 들여다봤다면, 여러 키워드 중에서 '공예(craft)'라는 단어가 은근히 사이에 들어온 이들도 있지 않을까 싶다.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인 디자인 마이애미(Design Miami)의 지역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인 시추(In Situ)' 프로젝트의 첫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면서 공예 작가를 다수 소개한 기획전 <창작의 빛: 한국을 비추다>(Illuminated: A Spotlight on Korean Design)(9. 2~14)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전 시장에서 열렸고,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닌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지난 4일 '세상 짓기'라는 주제(본전시)로 60일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했다. '키아프리즈' 주간에 개최된 브랜드 행사 목록을 봐도 '로에베 재단 공예상'으로 유명한 브랜드 로에베(매년 전시와 아트 토크를 진행한다)를 비롯해 저명한 공예가 카를로스 페냐피엘(Carlos Peñafiel)의 전시를 서울 한남 플래그십 매장에서 연 르메르 등이 눈에 띄었다. 재단법인 에올이 2022년부터 4년째 한국 공예의 가치를 알리고 증진하기 위해 샤넬과 함께 펼치는 '에올×샤넬' 프로젝트의 올해 전시 <자연, 즉 스스로 그려함>에서는 종이(지호장 백갑순)와 금속(이윤정)의 따로 또 같이식 양상들이 선보였다.

●● 대형 미술관과 갤러리, 브랜드 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성대한 축제의 주간에 들어선 '공예의 자리'에 대한 반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이 쟈마하기 그지없는 산업사회에, 예술의 상품화, 상품의 예술화가 갑수록 영리하게 일상을 꾸고드는 시대에 가치 있는 '만들기'의 정수를 끗듯하게 지켜나가는 공예의 소박하고 낭만적인 미덕을 기리는가 하면, "그런데 이게 공예야? 현대미술이야. 아니면 디자인이야?"라는 질문을 내뱉으며 아리송하지만 감탄 어린 눈빛을 보이기도 한다. 후자의 반응을 논하자면, 소위 '현대 공예'라 불리는 다양한 작품의 모양새, 규모, 전시 방식 등을 놓고 볼 때 누구는 '현대미술'이고 누구는 '현대 공예'라고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풀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녀왔음에도 공예는 이론적 체계와 담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에 순수미술과 디자인 사이에 끼어 있는 미야처럼, 혹은 필요

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분류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이 분야의 걸출한 이론가 하워드 리사티 교수는 공예와 미술은 둘다 손을 쓰는 '호모 패브릭'가 의식적으로 창출한 사물이지만,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태생부터 자연에 종속되고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 공예가 인류적 보편성을 지닌 데 반해, "순수미술품은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술품의 기호 체계를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원래 지니고 있던 의사소통의 의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공예는 인식이나 언어를 떠나 손에 잡히는 '진정한 사물(real object)'로서 독립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다.

●● 그동안 스쳐간 공예가들과 '아트 주간'에 만난 이들을 보면서 느낀, 가장 와닿는 차이점은 사물과 재료, 장인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일례로, 올해 에올×샤넬 전시에서 만난 이윤정 작가는 대개 주변부의 부속품으로 치부되는 뭇을 마치 액자 속 '주인공처럼 내세운 작품'을 선보였는데, '평등한 사물끼리의 평등한 상태'에 대한 소신과 사물을 대한 애정은 제인 배넷 같은 학자의 생기적 유물론을 떠올리게 했다. "못과 액자 사이에서 뭐가 더 메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질문해봤을 때는 그냥 똑같았거든요." 공예가들은 제작을 맡은 기술자와 장인들의 '손과 시간'에 대해서도 커다란 존경심을 내비친다. 청주공예비엔날레의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에 참여한 고소미 작가는 "장인이야말로 진짜 공예가"라면서 자신은 그저 현대 공예 작가로서 전통 기법을 이용해 현대화해가는 과정에 쓰임이 된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물질 세계의 제약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지만, 그럼에도 장인의 정신과 기술을 이어가며 열정 어린 순길로 부단히 뭔가를 빛내고자 하는 공예가의 태도. 이는 마하트마 간디의 자립과 저항 정신이 담긴 '카디 면'으로 인디고 회화 작업을 한 카이무라 이, 유목 문화를 반영한 펠트의 미학을 보여준 키르기즈공화국 작가들, 명상적이고 수행적인 설치 작업을 보여준 태국 공예가들에게서 섬세하고 명징하게 드러난다(청주공예비엔날레를 추천하는 이유다). 이렇듯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공예의 가치를 목도할 수 있는 현장을 대하니 "공예품을 만드는 일은 전 세계 사람들과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리사티 교수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글 고성연

●● 대형 미술관과 갤러리, 브랜드 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성대한 축제의 주간에 들어선 '공예의 자리'에 대한 반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이 쟈마하기 그지없는 산업사회에, 예술의 상품화, 상품의 예술화가 갑수록 영리하게 일상을 꾸고드는 시대에 가치 있는 '만들기'의 정수를 끗듯하게 지켜나가는 공예의 소박하고 낭만적인 미덕을 기리는가 하면, "그런데 이게 공예야? 현대미술이야. 아니면 디자인이야?"라는 질문을 내뱉으며 아리송하지만 감탄 어린 눈빛을 보이기도 한다. 후자의 반응을 논하자면, 소위 '현대 공예'라 불리는 다양한 작품의 모양새, 규모, 전시 방식 등을 놓고 볼 때 누구는 '현대미술'이고 누구는 '현대 공예'라고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풀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녀왔음에도 공예는 이론적 체계와 담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에 순수미술과 디자인 사이에 끼어 있는 미야처럼, 혹은 필요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지구의 내일을 사랑하는 법, '세상 짓기'

요즘 서울의 다양한 신을 만드는 원동력 중 하나는 '공예'다. 최근 로우프레스에서 펴낸 <서울 서울 서울>이 공예를 경험할 수 있는 50곳의 플레이스를 선정한 것처럼, 서울다움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다. "공예는 생활적인 측면에서 서울의 기저를 단단하게 해주는 세계라고 생각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소중히 하고, 아끼고, 배려하며 사람들과 교류를 이어나가는 매개라고요." <서울 서울 서울>의 저자 박선영이 '공예'를 통해 지금의 서울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요즘 공예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한다. 공예로 '세상 짓기'를 보여준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청주 문화제조장 본관, 11월 2일까지)가 개막했다. 환경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새로운 세상을 짓는 지금의 공예를 확인할 수 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도와주는 일손을 마다하고 동작은 다림취처럼 빠르며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손의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장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사실 '공예적이다'. 때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몇 년씩 명나라 바다만 보내 지내기도 하며 이 고단한 일을 도대체 누가 계승하고 발전시킬지 생각하느라 장인들은 매일 밤잠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만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공예의 미래'에 가슴이 뛰게 된다. "인간의 생존과 필요에서 비롯된 공예가 어떻게 탐미주의를 거쳐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재영 예술감독의 말처럼 밤을 짓고 옷을 짓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공예가 지난 본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행사. 벌써 14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세상 짓기: Re-Crafting Tomorrow'라는 주제로 16개국의 1백 48명의 작가가 참여해 보편 문명으로서의 공예부터 탐미주의를 위한 공예, 모든 존재자를 위한 공예,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예로 그 담을 들려준다.

여성들의 삶과 노동, 전쟁과 폭력을 담아내다
공예가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윤리를 바꿀 수 있을까? 환경 파괴, 종의 멸종,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담아 '자수와 위병'으로 엮어낸 공예 작품들이 전시된 충북 청주의 문화제조장 이 시대의 폭력성을 수공예로 전환해 치유에 대한 서사를 구축하는 작업에는 섬세한 미가 담겨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여성들과 협업해 자수 작업을 선보이는 수지 비카리의 작품, 종이와 섬유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고 중국 전통 의례에서 영향받아 철

학적 성찰이 깊게 배치된 작품, 청주국제공예모모전 수상작: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 참여했고 대상에는 목공 분야 이시밍 작가의 'Log 일자(日字)'가 선정됐다.

2 특별전인 <명령백화>에서

성파 스님이 선보인 '불들의

향연'은 칠층 같은 웃을 깊이

속에서 자개 기구가 은은히

반짝여 우주를 떠올리게

한다. 3, 4 태국 특별전으로

선보인 <유연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전시장,

첫 편찬나옹풍의 '미로'는

란나 불교 전통인 '분 마하트'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축제)'을

새롭게 구성한 참여형 설치물.

5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엮임과 짜임에서 선보인

카이무라의 '내 모든 기도'

대한 담은 내가 결코 끝지

않았던 질문 속에 있다' 설치

작업. 인도고를 성스러운

물질로 여기고 젖은 천에

한 솔직 선을 긋는 행위로

물질성과 의식의 경계를

탐색하는 작가는 카르나티

음악, 영적 상징, 물질의 기억을

융합한 수행 행위를 통해

작업을 의식처럼 실천한다.

이미지 제공_현대자동차

6 정교한 바느질을 넘어

세계와의 연결을 직조하는

수지 비카리의 작업이 펼쳐진

전시장 모습. 물입형 스티치

작품인 '바다'에는 움직이는

상어, 서파, 여객선과 함께

바다에 버린 쓰레기로 직조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7 '탐미주의'를 위한 공예

섹션에서 선보인 김희경과

구세나 작가의 작업. 김희경

작가는 전통 보트 제작

기술에서 영감받아 나무 조각을

부드럽게 휘고 사포질과 구리

선 봉합으로 마치 살아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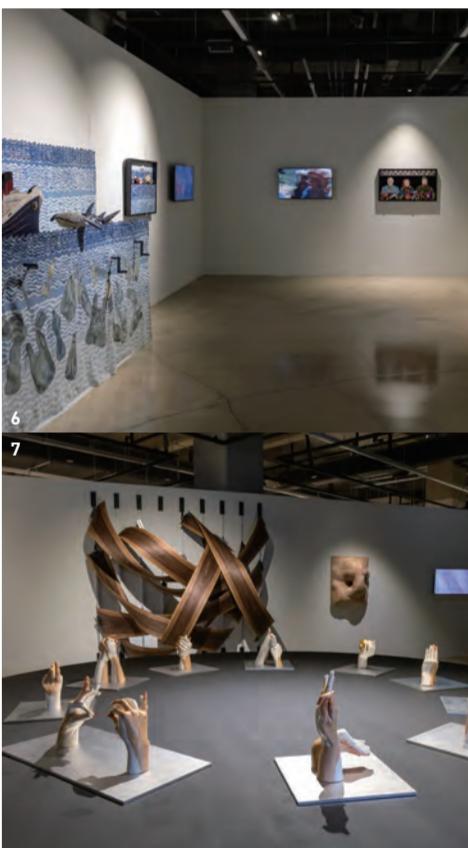
생물처럼 나무를 조각한다.

구세나 작가는 손이라는 신체

언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다가선다. 5~1~4, 6, 7

이미지 제공_청주공예비엔날레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첫선을 보인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엮음과 짜임> 특별전도 인상적이다. 섬유 노동의 명상적 수행에 대한 사유와 통찰을 직조한 장연순,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젖은 베일 작업에 명상적 움직임을 담아낸 유정혜, 인도 쿠치 지역 여성들이 계승해온 전통 아플리케를 자수 기법으로 완성한 흥연연, 인간의 생애를 담은 의복을 완성한 고소미, 그리고 보이토(Boito), 카이무라(Kitamura), 페로(PEIRO), 수마쉬싱(Sumakshi Singh) 등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8팀이 저마다 선보인 리서치 기반의 수행적인 작업은 놀치기 아쉽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공간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등 모든 관계의 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이 공기이 공명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미 작가의 말처럼 관계의 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착하는 또 다른 특별전인 <명령백화>에서 선보인 성파 스님의 100m에 달하는, 하나님 이어진 한지 작품은 미래 공예의 수공예적 망망대해로 안내한다. 전통에 대한 고민이 깊은 수많은 장인들도 이제 공예의 미래를 조금은 덜 걱정해도 될 것 같다. 수많은 예술가와 문화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interview with_고소미(Ko Somi)

잃어버린 흔적을 찾아서

섬유의 직조를 표현한 'Entangled and Woven(엮음과 짜임)'. 올해 청주공예비엔날레에 새로운 특별전으로 선보인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의 주제처럼 한국과 인도 작가의 작품이 얹혀 공예의 미래를 탐색했다.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8팀이 올해 청주공예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인도 국립공예박물관, 7월 영국 휴트워스 미술관으로 순회 전시를 가진다. 그 가운데 한국 작가로 선정된 고소미 작가를 잊혀가는 우리의 전통 소재가 가득한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전통 소재의 현대화 작업으로 서울의 다이내믹한 일상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공예는 한국 디자인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전통 장인들의 명맥을 이어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만들어낸 풍경일 것이다. 유품의 바닷가, 보성의 녹차밭, 홍화꽃이 깔린 어느 정원. 전통을 발전시켜가는 사람들을 둘러싼 풍경과 기억, 그리고 미래의 공예를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발견했다.

먹물이 한지에 스미는 것처럼 백색의 벽과 메탈 프레임으로 제작한 전통 들팅 등 따뜻한 햇살이 머무는 한지 커튼 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시간을 되살리는 연구자의 작업실 같다. 가족의 오랜 흔적을 그대로 담아 현대적으로 되살린 고소미 작가의 스튜디오는 작가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공간 같았다. 전통 소재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수납장에 작업에 사용하는 재봉실이 빈틈없이 자리잡았다. 무명천이 책처럼 쌓여 있고, 한지로 만든 그녀의 현대적인 설치 작업이 다정한 존재감을 발하는 공간은 잊힌 시간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여기 있구나 싶었어요,"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인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를 위해 인도로 리서치 트립을 다녀온 고소미 작가는 현지 작가들의 수공 작업을 보면서 전통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들의 삶이 쌓여 주름이 만들 어지고 있었어요." 인도 작가들의 작업 한 점 한점에 '오랜 삶'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인도의 민속 자수 기법인 '미러 워크(mirror work)'에서 신작의 실마리를 찾았다. 인도의 미러 워크 기법이 우리와 일제의 역사, 인도와 영국의 역사와 닮았다고 느꼈다. "거울을 뿐이 아닌 원단에 설치해 각자의 고유성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여러 방향에서 봐야 하고 시간을 쌓아서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생각으로요. 한 사람의 완성되어 갈 때 필요한 많은 외부 요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신작 3점을 선보인 고소미 작가는 이 모든 게 결국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했다. "한 사

1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에서 선보인 고소미 작가의 '한 사람의 사람들-연속과 한 사람의 사람들을-찰나',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는 한지의 차곡차곡 쌓인 한 사람의 주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을 습곡 같은 주름으로 표현한다. 이미지 제공_

현대자동차 2, 3 문화재조장

로비에 설치한 고소미 작가의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상에 의해 다른 모양의 주름이 차곡차곡 쌓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다. 4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작가의 작업실은 부모님이 살던 곳을 계조해 만든 곳이다. 옛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외관에 너무 퍼뜨렸다.

5 그녀의 작업실에는 수많은 한지와 소미사를 개발하기까지의 흔적, 실험 중인 작품이 케이지 쌓여 있다. 원래 동양학 전공이라 수목학으로 작품 드로잉을 했던 작가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수목학으로 드로잉하다 보니 망자는 그림이 많았다고. 그런 종이들을 주제로 절라

을 쓰면서 작품을 드로잉해온다. 6 작업실

창가에 자리 잡은 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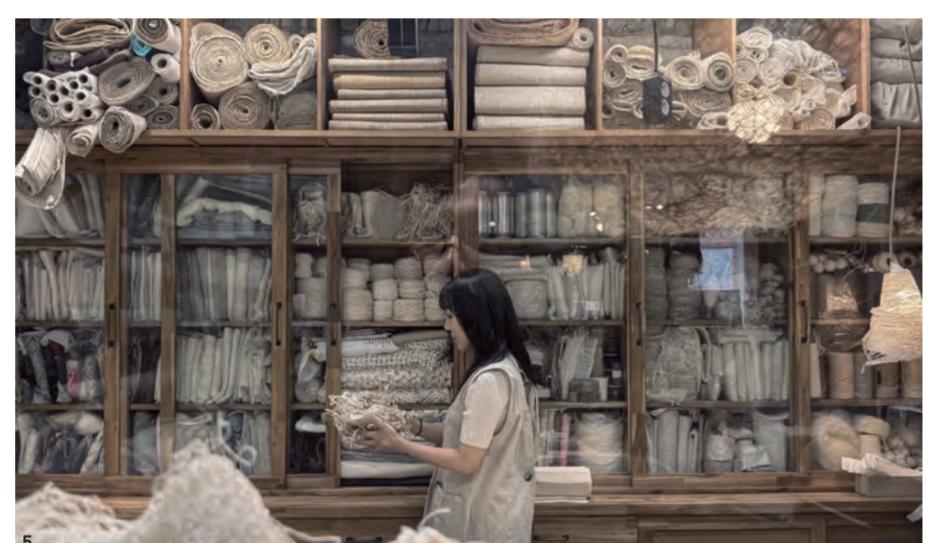
간, 한지와 함께 있다.

모든 것에 대한 존중과 화해, 한지로 건네다

한지는 단편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시선을 갖추기 위해 선택한 재료다. 한국화를 시작으로 설치, 공예와 텍스타일 디자인까지 확장해온 고소미 작가는 한지에 빠져 '소미사(물레에 종이를 넣어 돌리면 종이가 꾀이면서 실이 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한지 소재의 실)까지 개발했다. 사람, 지역, 자연 등 모든 곳에서 그 흔적을 더듬어가는 것에서 모든 작업을 시작하는 그녀는 한지 연구를 위해 13년 동안 일본에 머무르며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했다.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세계 섬유 미술계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다니카 히데오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애제자가 되어 한지의 물성을 연구했다. "제 작품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흔적'이에요. 저는 비문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풍경이건 인물이건 제가 그려야 할 대상 앞에는 늘 동그라미나 선이 줄지어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릴 때는 이 선이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였는데, 막상 뒤에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미러 워크 작품인 '한 사람의 사람들-찰나'는 그 사람의 순간을 표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점과 선이 마치 어떤 흔적처럼 무엇인가를 추측하게 만드는 단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가상의 동그라미와 선이 눈앞에 흘날리며 떠다니면, 저 자신의 상념과 관념이 바깥의 다른 것과 한데 섞여 공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공명은 살을 쓰면서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작가의 고유성을 주름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그녀는 한지와 소미사를 개발하기까지의 흔적, 실험 중인 작품이 케이지 쌓여 있다. 원래 동양학 전공이라 수목학으로 작품 드로잉을 했던 작가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수목학으로 드로잉하다 보니 망자는 그림이 많았다고. 그런 종이들을 주제로 절라

을 쓰면서 작품을 드로잉해온다. 6 작업실 창가에 자리 잡은 디오간, 한지와 함께 있다.

모든 것에 대한 존중과 화해, 한지로 건네다

한지는 단편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시선을 갖추기 위해 선택한 재료다. 한국화를 시작으로 설치, 공예와 텍스타일 디자인까지 확장해온 고소미 작가는 한지에 빠져 '소미사(물레에 종이를 넣어 돌리면 종이가 꾀이면서 실이 되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한지 소재의 실)까지 개발했다. 사람, 지역, 자연 등 모든 곳에서 그 흔적을 더듬어가는 것에서 모든 작업을 시작하는 그녀는 한지 연구를 위해 13년 동안 일본에 머무르며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진행했다.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세계 섬유 미술계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다니카 히데오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애제자가 되어 한지의 물성을 연구했다. "제 작품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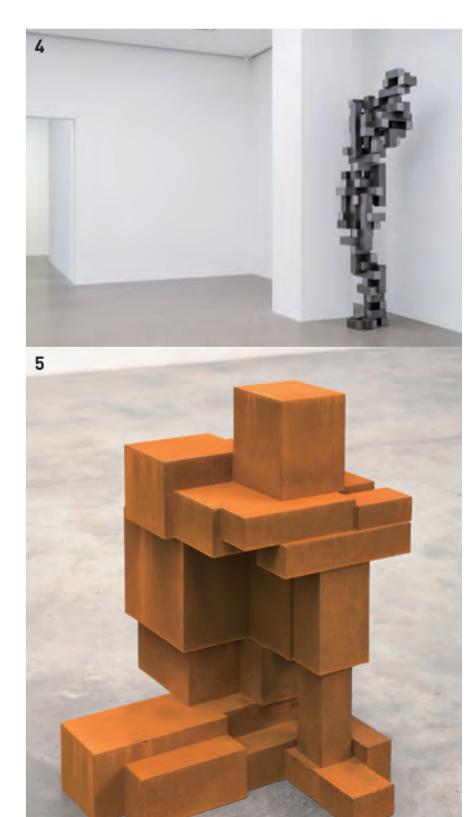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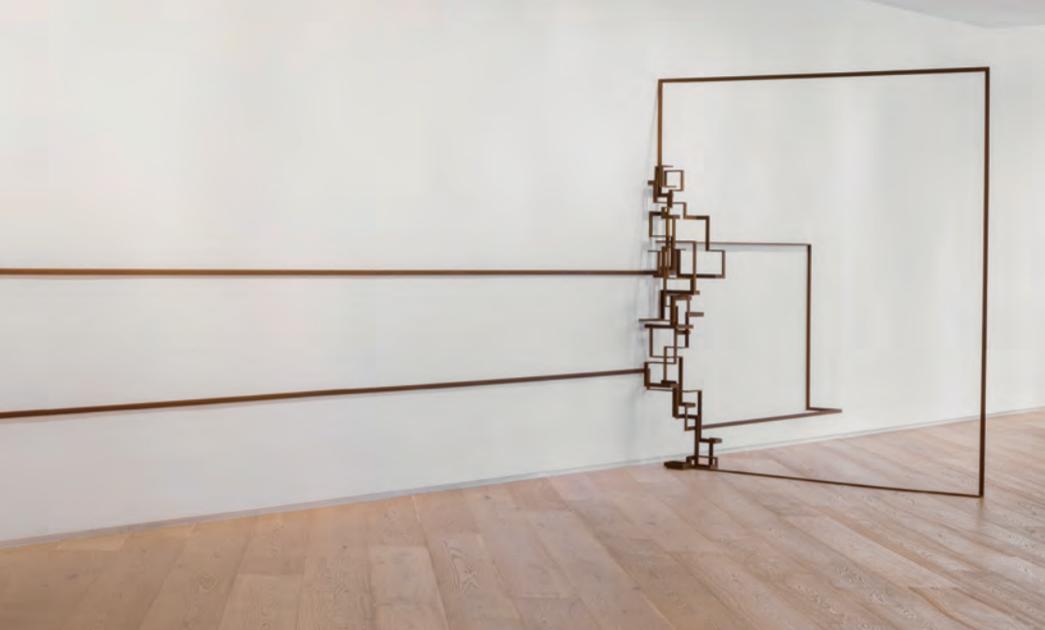
"인간은 동물적 본성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조각가 앤토니 곤리(Anthony Gormley)는 지난 8월 말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동물적 본성'을 강조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의 첫 서울 개인전 <불가분적 관계(inextricable)>가 세계적인 두 갤러리인 타데우스 로팍(Tadeusz Ropac, 2024, 8m Corten steel, 233.8x769.5x211cm, Photo by Stephen White & Co. © the artist 3 앤토니 곤리(b. 1950) 모습. Photog by John O'Rourke 4 화이트 큐브 서울에서 열리는 앤토니 곤리 <불가분적 관계(inextricable)> 전시 풍경 (오는 10월 18일까지). Photo © White Cube (Jeon Byung Cheol 5 Antony Gormley, COTCH XIII, 2024, Cast iron, 76.4x577x56.1cm, Photo by Stephen White & Co. © the artist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인 '인간과 공간의 관계'와 관련해 곤리의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동물적 본성'과 관련해서는 그의 최근 작업보다 이전 작품인 'Birth(iron, 0.8x2.3x0.7m, 통영 남양산 조각공원, 1997)'에서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 작품은 '보디 케이스(Body Case)'라고도 불리는데, 작가가 자신의 몸을 석고로 캐스팅해 만든 조각이다. 주름

을 살피고, 그에 맞춰 몸을 조각해낸 것이다.

2. 따라서 조각은 인간을 다시 세계와 이어주고, 인간 만이 지닌 동물적 리듬과 감각을 회복시켜 AI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로 기능한다. 그가 거듭 강조했듯 '조각은 우리를 다시 직접적인 물리적 경험으로 되돌려주는 도구'다. AI가 이미지를 합성하고 정보를 재구성할 수는 있지만, 카기운 철을 만지는 감각, 바닷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체험, 비 속에서 있는 조각을 마주하는 순간은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 있는 물로 세계와 연결됨을 느끼며, AI의 추상적 정보 세계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담론은 '동물의 신화'로 귀결된다. 그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엔 동물성의 회복이 끝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신화란 단순한 회귀의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 불가능성과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다. 곤리의 작품은 신화적 길망과 균형의 실험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몸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마지막 가능성을 제안하는 듯하다. 글 심은록(미술비평가, AI 영화감독)





Advanced Innovation

스위스 브라쉬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의 고요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가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았다. 처음부터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으로 시작해, 한 세기를 넘어 전 세계 럭셔리 시계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혁신과 전통의 공존이라는 긴 서사시를 써온 오데마 피게의 시간을 신제품을 통해 재조명한다.

새로운 세대의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

1875년 젊은 시계 장인 줄 오데마와 애드워드 피게가 함께 워치 공방을 열었다. 오데마는 모든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 먼저 칼리버 7138을 장착한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는 조립과 판매를 담당하며 완벽한 균형을 이뤘고,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시계는 초박형 무브먼트부터 퍼페추얼 캘린더, 미닛 리피터같이 고난도의 컴플리케이션을 담아내며 당대 컬렉터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러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에 대한 도전과 혁신을 1백50년간 지속해온 오데마 피게는 창립 150주년을 맞이해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한다. 과거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시작이었던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를 또 한번 업그레이드한 것. 주인공은 초박형 사이즈로 선보이는 차세대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인 칼리버 7138과 칼리버 7136이다. 덕분에 올 초 150주년 기념 모델로 선보인 41mm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와 로열 오크를 더욱 작은 38mm 버전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브먼트의 핵심이었던 '올인원' 크라운 역시 그대로 적용해 시간, 날짜, 일, 월, 문페이즈까지 모든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

무브먼트를, 피게는 조립과 판매를 담당하며 완벽한 균형을 이뤘고,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시계는 초박형 무브먼트부터 퍼페추얼 캘린더, 미닛 리피터같이 고난도의 컴플리케이션을 담아내며 당대 컬렉터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러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에 대한 도전과 혁신을 1백50년간 지속해온 오데마 피게는 창립 150주년을 맞이해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한다. 과거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시작이었던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를 또 한번 업그레이드한 것. 주인공은 초박형 사이즈로 선보이는 차세대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인 칼리버 7138과 칼리버 7136이다. 덕분에 올 초 150주년 기념 모델로 선보인 41mm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와 로열 오크를 더욱 작은 38mm 버전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우아함과 정밀함으로 빛어낸 대담한 디자인

오데마 피게에서 공개한 두 번째 150주년 기념 컬렉션은 '전통 위의 혁신'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한층 더 확장시킨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컬렉션이다. 세 가지 강렬한 원색 디자인으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변모해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원색은 레드 루비 루트(ruby root), 블루 소달라이트(sodalite), 그린 말라카이트(malachite)를 사용했다.

사실 오데마 피게는 1960년대부터 천연석 디자인을 지닌 심미적 잠재력을 탐구해왔다. 뛰어난 수작업 기술을 요하는 각 디자인은 웨이퍼처럼 얇은 충의 원석으로 제작하며, 세심한 절단과 연마를 통해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광채를 드러낸다. 각 원석에 내재된 색상 변화, 줄무늬, 풍부한 질감은 어떤 디자인도 똑같지 않은 유니크함을 선사한다. 이 특별한 삼부작을 위해 오데마 피게는 전 세계에서 엄선한 보석용 원석을 공수했다. 각각의 원석에 담긴 의미는 위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선명한 색감의 탄자나이산 루비 루트는 활력과 보호를 상징하며, 짙은 블루 컬러의 브라질산 소달라이트는 평온과 명료성을 상징하고, 풍부한 그린 컬러의 잡비아산 말라카이트는 성장과 변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각각의 새로운 모델은 18K 화이트·핑크·옐로우 골드 케이스로 제공된다. 6시 방향에 위치한 초박형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토르비옹의 기계적 정교함과 원석 디자인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다른 위치에서 볼 수 없던 환상적인 감각

1 18K 핑크 골드와 베이지
다이얼이 결합된 38mm
로열 오크 모델. 올인원
크라운 조정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제공한다.

2 매뉴팩처 창립 150
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문서에서 영감받은 빈티지
스타일의 'Audemars Piguet'
시그니처가 삽입되어 있다.

3 한정판을 표시한 숫자 '150'
이 각인된 모습. **4**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라이트 블루
그랑드 퍼페추얼 디아일을
매치한 버전의 로열 오크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5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그린
양각 디아일로 완성한 150주년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6 새로운 38mm 사이즈의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플라잉

토르비옹. 블루 소달라이트를

매치한 버전. **7**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플라잉 퍼페추얼

레드 루비 루트 디아일 버전.

8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플라잉 퍼페추얼 그린

말라카이트 디아일 버전.



을 선사한다. 무브먼트는 올해 초 출시된 38mm 셀프 와인딩 플라잉 토르비옹을 기반으로 제작한 칼리버 2968이다. 매뉴팩처가 41mm 미만의 시계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셀프 와인딩 플라잉 토르비옹 무브먼트이며, 2022년 로열 오크 RD#3에 처음 도입한 초박형 칼리버로 두께가 3.4mm에 불과한 고성능 컴플리케이션이다. 케이지의 원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폭을 줄이기 위해 재구상 및 재설계되었다. 기존 토르비옹과 달리 플라잉 토르비옹 케이지는 하단부에서만

지지되어 디아일의 천연석을 배경으로 우아하게 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오데마 피게는 여전히 오데마 피게 가문의 후손들이 운영하는 독립적 메종으로 자리하고 있다. 거래 그룹에 편입되지 않고도 무려 1백50년 동안 세계적 명성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브랜드의 진정성과 신뢰도를 반영한다. 이는 오데마 피게가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하는 이유다. 문의 02-543-2999 에디터 성정민



King of Diamonds

반세기 이상 주얼리를 향한 찬사를 담아온 그라프(GRAFF)는 가족 경영과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예술적 디자인을 펼친다. 매번 독창적인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며 보석과 주얼리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이번 시즌에는 트와이스 사나와 만나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하고 우아하게 풀어냈다. 창의성과 더불어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라프만의 열정적인 행로를 되돌아본다.

History of GRAFF

영원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는 수십 년의 시간이 빛어낸 산물이며, 그라프는 다이아몬드를 향한 망설임 없는 열정과 찬사를 보내는 하이 주얼리 브랜드다. 진귀한 보석의 광채와 반세기 넘도록 이어온 그라프의 예술적 기술력이 교차되니 세대를 뛰어넘는 하이 주얼리의 탄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몇십 년에 걸쳐 주얼리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그라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족이다. 하이 주얼리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창립자 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가족 경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라프의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 (Laurence Graff)는 다이아몬드 전문 도매 기업

- 1 압구정 갤러리아 이스트에 실롱을 확장 오픈한 그라프는 엄선된 예술품과 오브제, 및 맞 제작된 은은한 조명 등으로 주얼리 브랜드 특유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았다.
- 2 전통 세공 기술을 마스터한 그라프 장인들은 최첨단 기계를 활용해 주얼리의 초기 설계부터 세팅 전 과정을 손으로 직접 완성한다.
- 3 주얼리업계에서 독자적 입지를 자랑하는 그라프와 트와이스 사나가 만나 그라프 하이 주얼리만의 우아한 자태를 표현했다.
- 4 총 3.33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조화로운 드롭 스타일의 하이 주얼리 이어링.
- 5 유려한 구조의 라운드 컷과 비케트 컷 다이아몬드 끝에 오벌 컷 팬시 비비드 오렌지 엘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을 창립한 후 1970년대 초 런던의 나이츠브리지에 첫 그라프 매장을 오픈한다. 오픈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매장 중 하나로 발전하며 수많은 주얼리 수집가의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아들 프랑소와 그라프(Francois Graff)가 브랜드의 경영에 투입되면서 그라프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다. 프랑소와는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 로렌스에게 주얼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보석에 대한 흥미를 키워왔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이아몬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쌓는다. 이후 경영 전문 과정을 수료한 직후인 1986년에는 그라프에 입사하고, 2004년에는 CEO가 된다. 그리고 창립자의 동생이자 주얼리 장인 레이몬드 그라프(Raymond Graff)는 런던 하이 주얼리 공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조엘리엇 그라프(Elliott Graff)는 제품 디자인과 판매는 물론 다이아몬드 매입과 생산 공정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그라프 가문의 핵심 인물 4명이 모여 개인의 역할과 시각을 더하면서 브랜드의 입지를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가족적 기업 가치는 강한 책임감과 영감을 불어넣어 그라프만의 오랜 전통과 장인 정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주얼리 하우스에서 취급하는 모든 스톤을 직접 선택하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며, 다이아몬드 소싱부터 컬렉션 디자인까지, 주얼리의 모든 제작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원칙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구축했다.

또 그라프는 다이아몬드와 유색 보석을 통해 시대와 유행을 조율한 창의적 디자인을 선보인다. 그 중심에는 장인의 정교함과 세공 기법, 브랜드 고유의 독창성이 발현되는 워크숍이 있다. 런던 메이페어(Mayfair)에 위치한 워크숍은 유럽에서 가장 큰 워크숍 중 하나로 원석의 선별과 연마, 가공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세밀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워크숍 내부에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금세공 도구를 비롯해 최첨단 컴퓨터와 3D 인쇄, 스캐너, 그리고 정통 기술력을 이어가는 그라프의 마스터 장인들이 존재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잊고 미래 지향적 환경을 조성한다. 주얼리 제작의 시작은 디자인의 형태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슈(gouache) 단계. 실제 스톤을 사용해 다이아몬드와 스톤의 정확한 위치를 종이에 스케치하고 상황에 따라 점토로 모형을 만들어 입체적인 청사진을 그린다. 이후에는 주얼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그라프의 과슈는 최첨단 컴퓨터를 통해 3차원적인 이미지로 전환되고, 기원전 2700년의 고대 방식인 로스트 왁스 주조법을 활용해 주얼리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손으로 작업한다. 수작업으로 섬세하게 조정된 각 요소를 조합해 피부에 닿는 밀착감, 스톤의 대비와 조화 등을 조절하고, 스톤의 광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팅 및 폴리싱을 수십 번 재연마한다.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유려한 실루엣, 투명도, 고유의 컬러가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특별하고 경이로운 그라프 주얼리는 다이아몬드와 스톤 고유의 광채에 대한 이해도에서 출발해 장인의 손에서 최고의 예술적 기교로 완성된다. 베터 플라이, 와일드 플라워, 틸다의 보우,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스파이럴 컬렉션 등 그라프를 대표하는 작품 모두 이렇게 탄생한다.

그라프와 트와이스 사나, 그 황홀한 만남

하이 주얼리 신에서 독보적인 그라프와 가요계 안팎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트와이스 사나. 이들의 뜻깊은 만남은 한 편의 로맨틱한 영화를 보는 듯하다. 낭만적인 도시, 파리 중심에 자리한 리츠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갈라 이벤트 참석을 준비하는 사나의 모습과 그녀가 착용한 그라프의 대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 포착되었다. 먼저 사나가 착용한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와 이어링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과 바케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구조적인 곡선 형태를 구성하고, 그 끝에 오벌 컷 엘로 다이아몬드를 반복적으로 배열해 엘로 다이아몬드 특유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강조했다. 특히 3.01캐럿의 쿠션 컷 엘로 다이아몬드가 포인트인 솔리태어 링은 화이트 다이아몬드 밴드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하이 주얼리 특유의 호화로운 오라를 발산한다. 캠페인 속 사나가 착용한 하이 주얼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운드와 페어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아라부터 7.77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프로미스 링까지, 유기적 구조를 이루며 화이트 다이아몬드의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려냈다. CEO 프랑소와 그라프는 “트와이스 사나는 밝은 성격과 담대한 태도는 물론 자신의 커리어와 예술을 향한 열정을 지녔죠. 이러한 그녀의 에너지가 그라프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그라프의 철학과 창조적 비전, 하이 주얼리의 대담한 형태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롱한 그라프 하이 주얼리와 트와이스 사나의 우아



한 매력을 세밀히 살펴보길 바랍니다”라고 전하며 그라프와 함께 일상은 물론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 더없이 찬란하게 빛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라프의 찬연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속에서 빛나는 트와이스 사나의 달衰退은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라프 공식 홈페이지(graff.com)를 주목해보자. 문의 02-2150-2320
에디터 김하얀

A Legacy of Flowers

늘 자연의 생명력에 매혹되어온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2개의 컬렉션, 플라워레이스(Flowerlace)와 플레르 드 하와이(Fluers d'Hawai'i)를 선보이며 그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꽃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오롯이 담아낸 새로운 컬렉션은 반클리프 아펠만의 유서 깊은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존재의 순간부터 메종에서 창의성을 불어넣는 영감의 원천인 꽃들의 찬란한 유산. 마치 동화와 같은 스코틀랜드의 플라워 가든에서 열린 반클리프 아펠의 특별한 이벤트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이 주얼리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미학을 만날 수 있었다.

반클리프 아펠의 꽃을 향한 친사

반클리프 아펠의 꿈결 같은 정원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 자연에서 꽃들이 피워내는 아름다움을 영원히 담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은 생동감 넘치며 아름다운 상징성을 갖춘 주얼리 작품을 창조해내고 있다. 미스터리 세팅(Mystery Set), 미노디에르(Minaudière) 케이스, 변형 가능한 지프(Zip) 네크리스, 그리고 알罕브라(Alhambra) 모티브를 비롯한 매우 고유한 메종만의 스타일은 독보적인 독창성과 서정성으로 명성과 가치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반클리프 아펠에 창작, 공유, 그리고 계승이 지난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연과 쿠튀르, 무용,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서 영감받아, 시간을 초월 한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눈부

“
자연은 반클리프
아펠에 설립 순간부터
소중한 영감을
불어넣어온 원천이다.
반클리프 아펠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며
주얼리 작품은 물론,
예술 협업과 전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연의 세계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 세계는 반클리프 아펠이 단순한 주얼리 브랜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반클리프 아펠은 수년간 무용, 주얼리를 포함한 장식 예술, 디자인, 자연 보존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꾸준히 전개해왔다. 지난 7월 플로라 인터내셔널 이벤트가 개최된 킹스 파운데이션(The King's Foundation)의 정원은 그 긴밀하고 특별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의미 깊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는 파트너들과의 공통된 신념은 자연에 대한 반클리프 아펠의 존중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게 만든다.

플라워레이스와 플레르 드 하와이

늘 자연의 생명력에 매혹되어온 반클리프 아펠이 2개의 컬렉션, 플라워레이스(Flowerlace)와 플레르 드 하와이(Fluers d'Hawai'i)를 선보이며 메종의 정원을 더욱 풍성히 피워낸다. 플레르 드 하와이 컬렉션은 생동감이 가득 차오르는 정원에서 싱그러운 영감을 받아, 생명력 가득한 컬러를 선보인다. 갓 피어난 꽃 같은 주얼리와 워치는 파인 스톤으로 피워낸 꽃잎,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꽃술, 그리고 골드로 제작한 잎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에 새롭게 선보인 플라워레이스 컬렉션은 오픈워크 기법으로 화관의 실루엣을 표현한 작품이다. 둥근 세이프로 꽃을 우아하게 표현한 실루엣은 부드러운 라인이 인상적이며, 반클리프 아펠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주제인 'ку튀르'를 활기 넘치게 표현해낸다. 반클리프 아펠의 장인들은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해서 이번 컬렉션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플라워레이스 컬렉션은 메종이 1930년대 후반에 탄생시킨 '실루엣 클립(Silhouette Clip)'에서 영감을 받았다. 컬렉션 구성은 아르 데코 후기에 등장한 스타일의 특징을 보여주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꽃 표현을 제시한다. 풍성함과 비움의 조화로운 벨런스 속에서 꽃들은 정교한 골드 라인으로 실루엣을 이루고, 다이아몬드가 더해져 찬란하게 빛난다. 자연과 쿠튀르의 조화가 돋보이는 새로운 플라워레이스 컬렉션은 동일한 명칭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계승하며 한층 생동감 있는 심플함 속에 정교함을 담은 새로운 주얼리의 탄생을 보여준다.

1 플레르 드 하와이(Fluers d'Hawai'i) 이어링 스몰 모델. 로즈 골드, 룰돌라이트,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반짝이는 꽃잎이 사랑스럽다.

2 엘로 골드, 시트린, 다이아몬드 소재의 플레르 드 하와이 링 라지 모델.

3 다이아몬드 세팅한 엘로

골드 소재 플라워레이스

(Flowerlace) 펜던트 스몰 모델.

4 플라워레이스 비트원 더 평거

(Flowerlace Between the Finger) 링 스몰 모델. 엘로

골드, 다이아몬드로 구성.

5 플라워레이스 클립 펜던트

라지 모델을 적용한 모델.

꽃잎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으로 봄꽃감을 선사하고,

꽃술은 크기가 다른 사이즈의

다이아몬드와 골드 비즈가

어우러져 움직이는 자연을

세세한 비대칭성으로 표현했다.

6 반클리프 아펠의 장인들은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해서

컬렉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고귀한 메탈 소재는 열을

기해 풍해하며, 녹은

왁스에 남긴 자국을 따라

부어 형태를 만든다. 골드

요소들은 주얼리의 손길을

거쳐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

젬스톤 세팅과 폴리싱 기법을

적용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7 스코틀랜드의 퀸 엘리자베스

월드 가든 내에 위치한

로즈 가든에서 열린 플로라

인터내셔널 이벤트, 마치

동화와 같은 분위기에서

꽃들과 주얼리가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광경을 선사했다.

8 플레르 드 하와이 시크릿

워치. 화이트 골드, 아파마린,

화이트 멀티오브펄,

다이아몬드,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했다.

8



interview
“혁신과 도전으로 지켜온 아름다운 유산”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enier, 반클리프 아펠 CEO)

플로라 인터내셔널 이벤트가 열린,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택 중 하나인 덤프리스 하우스에서 만난 반클리프 아펠의 글로벌 CEO 캐서린 레니에와의 친밀하고도 따뜻했던 인터뷰.



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주얼리들의 전문성에서 나온 것으로, 꽃잎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구조와 완성도를 끝임없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메커니즘의 개발 또한 혁신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의 시그너처 요소를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짐금 장치(clasp) 개발, 편안한 촉감, 견고함 등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반클리프 아펠의 기준이 되는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두 컬렉션에서 기술적 측면이든 디자인적 측면이든,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인지요?

플레르 드 하와이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스톤 셀렉션(stone selection)입니다. 컬러 조합, 형태, 특히 꽃 디자인에 기반을 더해주는 페어 세이프(pear shape) 스톤 등의 요소를 조화롭게 선택하고 매칭함으로써 메종의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플라워레이스 컬렉션은 꽃의 추상적 디자인인 특징인데, 오트 쿠튀르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죠. 리본처럼 꽃의 크기와 형태를 만들어내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컬렉션은 자연, 꽃을 근본으로 삼았지만 매우 다른 해석을 보여주며, 이는 자연 속에 있는 꽃에 대한 무한한 칭의성을 보여주는 메종의 방식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컬렉션 모두 센터(중심부) 디자인은 동일한 접은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교한 다이아몬드 세팅입니다. 골드 비즈와 꽃술을 세련되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구현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파리지앵 쿠튀르(Parisian Couture)와 연결 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에서 '쿠튀르'란 어떤 의미이며, 그 유산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난 1920년대의 아르데코(Art Déco)가 유행하던 시기 예전의 컬렉션은 골드와 원단(fabric)처럼 사용되곤 했습니다. 마치 쿠튀르의 원단처럼요. 예를 들어 실루엣 클립에서 골드는 꽃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리본처럼 사용되고, 리본 장식이나 꽃잎을 표현하기 위해 레이스처럼 작업된 골드도 있습니다. 이는 쿠튀르와 주얼리의 연결 고리이며, 큰 영감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번 행사 장소로 스코틀랜드를 선택하신 것이 조금 의외인네요.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장소를 택하게 되셨나요?

저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원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킹스 파운데이션과의 협업은 반클리프 아펠 로즈 가든(Rose Garden)의 탄생으로 한층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컬렉션을 소개하고 꽃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할 때, 그동안 정원과 함께해온 메종의 가치를 떠올렸고 주얼리, 즉 우리의 (가상) 정원을 실제 정원으로 구현해 이 2개의 정원을 함께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엔 전 세계 여러 정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 중 '로즈 가든'이 메종의 창작에서 중요한 요소였기에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현지 인터뷰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메종으로서 반클리프 아펠은 ‘혁신’을 어떻게 구현하나요?

그건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르 드 하와이 컬렉션의 혁신은 스톤을 보호하면서도 두드려져 보이지 않도록 한 골드 세팅인데, 이는 오랜 시간의 연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꽃잎이 마

Get

The

List

품격 있는 가을을 보내는 가장 이로운 쇼핑.

PHOTOGRAPHED BY JEONG SEOKHEON



CHANEL FINE JEWELRY
(위부터) 아이코닉한 퀸팅 모티브로
가득한 코코 크라쉬 컬렉션으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스몰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링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샵별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TOD'S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일파벳인
T를 모티브로 한 기하학적
컬러 대비 스티칭이
돋보이는 빅 사이즈 백.
정제된 느낌을 주면서도
구조적 디자인으로 간결미를
표현한 디자이너 플리오 백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48-8233



OMEGA
여섯 번의 달 착륙 미션에 참여한
브랜드의 가장 아이코닉한 타임피스
기운데 하나로 지름 43mm 스틸
케이스에 블랙 PVD 코팅 처리한
운석 모양의 플레이트로 다이얼을
장식했다. 6시 방향 문페이즈에는
실제 달 운석으로 만든 2개의 달이
자리해 특별함을 더하는 미니아라이트
스피드마스터 문페이즈 2천5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RALPH LAUREN PURPLE LABEL
고급스러운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한
토트백, 은은한 라이트 브라운 컬러와
이탈리아 장인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핸드
스티치 디테일, 섬세한 마감 등이 돋보이는
베드포드 카프 스킨 토트 가격 미정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문의 02-3438-6235



HERMÈS WATCH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에 화이트
실버 다이얼과 블루 카운터를
매치하고 미닛 트랙, 레이즈드
마커, 초침 등에 적용한 오렌지
포인트, 독특한 서체의 아워 마커
등으로 유쾌한 감각을 더한 아웃
크로노그래프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문의 02-542-6622



CELINE
(왼쪽부터) 반짝임이 매력적인
블랙 페이던트 카프 스킨 소재에
소녀스러운 감성을 물씬 풍기는
동그란 앞코가 매력적인 러리
퍼포레이티드 트리옹프 슬링백
1백45만원, 블랙 그로그램 소재에
트리옹프 로고 버클로 암성한
알마 트리옹프 런 1백45만원
모두 셀린느, 문의 1577-8841



MONTBLANC
브리프케이스 같은 형태지만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구성해
백으로도 활용 가능한 실용성
높은 디자인이 특징. 튼튼하고
세련된 카키 그레인 레더 소재에
님 형태의 지퍼, 스티칭, 외부 포켓
등의 디테일까지 갖춘 24/7 백
3백64만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왼쪽부터) 불룩한 블록형의 브라스 소재 이어링,
한쪽에 블랙 앤마엘로 디테일을
더한 스페리아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펜디, 문의 02-544-1925
에디터 성정민

램 스킨 벨벳 코튼 재킷, 브라운
터틀넥 톱, 램 스킨 벨벳 코튼 팬츠,
블루 콘스탄스 백 모두 가격 미정
애르메스. 블랙 부츠 가격 미정 토즈.



맥시 버튼 베스트 4만800만원
레더 및 네오프렌 스커트 5백30
만원, 퍼플 폐이不要太 레더 물 1백53
만원, 블랙 타이즈 가격 미정, 시에나
스몰 솔더백 가격 미정 모두 구찌.
카프 스키니 소재의 엔벨로프 크로스 보디
백 3백32만원 옹클레르 + 질 샌더.



울 캐시미어 카디건 4백만원대, 니트
톱 3백만원대, 투톤 세브론 해그피시
레더 스커트 1천4백만원대, 투톤 인레이
해그피시 레더 부츠 3백만원대, 골드
이어링 가격 미정, 핑크 스카이 백
스물 4백만원대, 시어링 린마 바게트
미디엄 5백만원대 모두 펜디.



글로에 러플 블라우스, 블랙 스커트,
스트랩 슈즈, 벨트, 패딩된 미디엄 백
모두 가격 미정 글로에.

모헤어 울 드레스, 믹스드 파이버
& 페인트 카프 스킨 소트 부츠,
메탈 & 글라스 펄 브레이슬릿,
사이니 캠 스킨 & 골드 톤 메탈
보우 백 모두 가격 미정 샐러



소트 플레이 드레스
1천1백만원, 핑크 피니시 메탈
& 화이트 레진 진주 초커 7백
50만원, 디모션 스몰 백 5백
30만원, 미스 카로 디올링 미니
체인 백 3백65만원 모두 디올.



뷔스티에 톰 가격 미정, 맥시
란제리 드레스 가격 미정, 실버 월
가격 미정, 익스프레스 MM 6 백
16만원 모두 루이 비통, 브리앙
템포 시나몬 백 가격 미정 멜보



에르메스 02-542-6622
샤넬 080-805-9628
토즈 02-3438-6008
루이 비통 02-3432-1854
디올 02-3280-0104
펜디 02-544-1925
몽클레르 0030-8321-0794
끌로에 02-6905-3670
미우미우 02-541-7443
구찌 02-3452-1921
질 샌더 02-6905-3530
엘보 02-2150-2332

세틀랜드 올 재킷, 카키 세이블
드레스, 올리브 실크 톱,
레더 부츠, 핑크 보 백 모두
가격 미정 미우미우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Mykalla Walker
스타일리스트 재한석
장소 협조 청담셀링아워

New Season,



장인 정신이 깃든 매듭 디테일과 견고한
승아지 가죽 소재, 그리고 네녀한
수납력과 양 측면에 자리한 트위스트 락
장식 등이 조화롭다. 달착 가능한 한
숄더 스트랩을 통해 크로스 보디로도
연출할 수 있는 미니 피카부 백
8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등근 보디와 정교한 트위스트 핸들이
만나 독특한 실루엣을 자랑한다. 특히
라운드 플랩 클로저에 구성된 코인 포켓은
이 백에서 놓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
부드러운 승아지 가죽 소재 덕분에
가방을 한 손에 움켜쥐어 클러치로도
활용 가능하며, 내장된 숄더 스트랩을
통해 숄더 또는 크로스 보디로도
스타일링할 수 있는 스파이 스몰 백
각 4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New Essence

미적인 세밀함과 오차 없는 구조적 실루엣은 하나의 작품과도 같다. 계절의 변화 앞에서 마주한 F/W 백 & 슈즈.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위부터 차례대로)

노출된 솔기와 빈티지한 위성이 앤티크한
감성을 자아내는 미드 힐 펌프스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메탈 디테일의 날렵한 앞코가 돋보이는
카프 스킨 레더 풀 2백1만원 에트로
문의 02-3446-1321. 극도로 길고
뾰족한 앞코와 슬릭한 라인, 큼직한 버클
디테일이 인상적인 헤론 베를 부츠
2백만원대 백瘟 문의 02-6102-2226.
알마벳 체인 스트랩과 메탈 로고
클로저가 특징인 송아지가죽 소재
마이 카퓌신 백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오묘한 바이올렛 컬러의 마이스터스워크
미니 메신저 백 2백22만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V 메탈 로고와 크로커다일
레더 등이 페미닌한 분위기를 부여하는
베인 백 가격 미정 팔렌티노 가르바니
문의 02-2015-4655. 둥근 실루엣의
버펄로 레더 홀스 메달 숄더백 2백30
만원 골로에 문의 02-6905-3670.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로 장식된
모던한 디자인의 복스 카프 스킨 레더
RL 888 크로스 보디 백 4백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온은한 광택의 그린 해그피시 레더
소재를 기미해 고급스러운 미디엄 암마
백 5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메탈 체인과 물결무늬 텍스처의 카프
스킨 레더, 가죽으로 엮은 핸들 등이
색다른 멋을 선사하는 벨라 백 5백50만원
에트로 문의 02-3446-1321. 밤품을
슬럽하게 감싸는 클래식한 켈시 부츠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280-0104.

D자형 외부 포켓을 더한 유연한 실루엣의
송아지가죽 소재 팽 스윙 백 4백61만원
멜보 문의 02-2150-2332.



센 당크르(châne d'ancre) 링크를
적용한 체인 스트랩이 특징인 복스 카프
스킨 레더의 클리크티 백 2천48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아찔한 포인티드 토의 스트레피 펌프스
1백6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물뱀가죽으로 견고한 실루엣을 완성한
보 백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
541-7443, 디테일을 철저히 배제해
직사각 셰이프와 톱 핸들을 강조한
포부르 익스프레스 백 1천7백55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김하연



Desire of Autumn

농밀하고 강렬하다. 짙게 배어든 빛 사이로 드러난 형형색색 가을 향.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랑 살리마 레쌍스 오 드 퍼퓸 인텐스**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재해석했다. 신선한 베르가모트 향이 로즈와 포근한 바닐라, 그리고 머스크 향과 만나 우아한 내음을 뿜어낸다. 90ml 27만5천원, 문의 080-343-9500
프라다 패리다임 오 드 퍼퓸 전형적인 남성성을 깨고자 베르가모트와 정제된 플로랄 향의 저라늄을 선택한 뒤 앰버리 우드로 마무리했다. 여성도 접근 가능한 젠더리스한 향이 특징. 100ml 21만7천원, 문의 02-3277-0128 **불가리 알레그라 인시에메 시더우드**와 피오니, 만다린, 파솔리 등 감각적인 향의 조합으로 우디한 플로랄 향이 탄생했다. 페미닌한 향을 시작적으로 표현한 핑크빛 보틀도 눈여겨보길. 50ml 25만7천원, 문의 02-6105-2120 **에르메스 바네리아 오 드 퍼퓸 인텐스** 버터플라이 릴리와 참나무에 파솔리 앱솔루트와 미라를 베리를 더해 여성의 강인함과 부드러운 면모를 모두 표현했다. 100ml 28만8천원, 문의 02-3479-1368 **트루동 미스티크 레드빛** 보틀에서 느낄 수 있듯 강렬하고 세련된 향을 강조했다. 가죽, 오드, 엔버가 샌들우드, 파파리스와 어우러지고, 오렌지 앰버와 에보니를 가미해 신선하고 관능적인 여운을 남긴다. 100ml 43만원, 문의 02-6905-3324 **펜디 오 다르티피스** 아름다운 로마 고유의 감성을 향으로 구현했다. 축제를 연상시키는 달콤한 향이 특징이며 따스한 머스크와 상쾌한 노간주나무의 아로마가 어우러져 다층적인 향을 자아낸다. 100ml 40만원대, 문의 02-544-1925 **지방시 뷰티 드 지방시 랑팡 테리필** 럽다님과 베르가모트, 진저 애센스가 조화를 이루는 향이다. 특히 같은 컬렉션 중 하나인 **아코드 파티큘리에**와 레이어링하면 우디 머스크 향과 시트러스 향이 결합되어 중성적이고 상쾌한 향을 느낄 수 있을 것. 100ml 42만원, 문의 080-801-9500 **다일 뷰티 라 콜렉시옹 프리비 로즈 스타 오 드 퍼퓸** 다마스크 로즈 향이 두각을 드러내며 상큼한 시트러스와 스파이시한 향이 허니와 머스크 향으로 이어져 예상치 못한 풍부한 찬향을 넘친다. 색다른 로즈 향을 경험하고 싶다면 추천. 100ml 45만원대, 문의 080-342-9500 **에디터 김하연**

080-342-9500 에너지 절약



불가리 호텔 파리(Bulgari Hotel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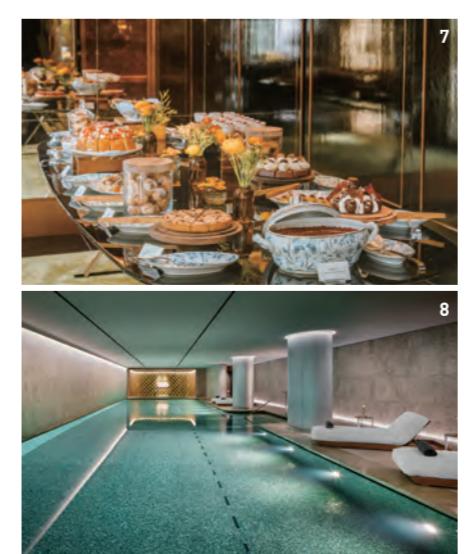
‘빛의 도시’에서 반짝이는 이탈리아 감성



파리가 여행자들의 선망을 받지 않았던 기억은 별로 없지만, 답답했던 팬데믹 시기에 ‘하늘길’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도 단연 상위권에 올라 있었다. 실제로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선정한 세계 1백대 도시 순위에서 파리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024년 말 기준). 아마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더욱 빛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해온 덕도 있었을 터다. 한층 더 근사해진 도심의 호텔 풍경도 파리의 매력을 증폭시키는데 한몫을 단단히 했는데, 그중에는 2021년 말 ‘파리의 동맥’으로 불리는 8구(센강 오른쪽)에 우아하게 둑지를 튼 불가리 호텔 파리(Bulgari Hotel Paris)도 있다. 북쪽으로는 개선문, 남쪽으로는 콩코르드 광장을 사이에 두고 기다랗게 펼쳐진 샹젤리제 거리를 품고 있는 화려한 8구에서도, 풍요롭고도 섬세한 이탈리아의 럭셔리 감성이 매혹적으로 흐르는 럭셔리 호텔이다.

도시 곳곳에 투영되는 빛의 미학으로 유명한 파리 시내의 중심가인 8구에는 ‘황금 삼각지대(Golden Triangle)’라 불리는 동네가 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이름일 상젤리제(Champs-Élysées), 몽테뉴, 그리고 조르주 V 거리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 가운데 상젤리제와 가깝지만 마치 다른 동네에 온 듯 번잡스럽지 않은 조르주 V 거리의 한 자락에는 단아한 외관을 지닌 11층짜리 석조 건물 앞에 서 있는 도어맨들부터 다정다감하게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어쩐지 ‘이탈리언 감성’이 어린 듯한) 불가리 호텔 파리(Bulgari Hotel Paris)가 자리하고 있다. 1884년 로마 중심부에서 탄생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불가리는 메리어트 호텔과 손잡고 밀라노, 런던, 발리, 도쿄 등에 걸쳐 꾸준히 공간을 확장해오며, 럭셔리 호텔 생태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도도한 이미지의 파리 중심가에 로마의 햇살처럼 따사로운 이탈리아 감성이 어떻게 균형 있게 녹아들었을까?

첫인상을 말하자면, 생각보다 편안하게 다가왔다. 온화한 베이지색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블랙 톤을 배경으로 감각적인 가구, 오브제와 더불어 1960년대 이 지역을 방문했던 소피아 로렌 같은 셀럽들의 사진으로 장식한 고혹적인 인테리어가 펼쳐지지만 '하이 주얼리 브랜드'라고 하면 곧잘 연상되는 특유의 화려함을 애도적으로 뺏어내는 본의기부다라는 유크하



1 프랑스 파리 8구에 자리해
상젤리제와 개선문을 도보로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불가리
호텔 파리(Bulgari Hotel Paris)
건물 외관(11층).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76개의 객실을
갖추었다. 2 불가리 호텔 파리의
펜트하우스에서 즐길 수 있는
정원 풍경. 3 펜트하우스 내
다이닝 룸. 4 이탈리아 배우
모나카 비티(Monica Vitti)를 그린
화가 안페이밍의 조상화가 눈길
사로잡는 호텔 로비. 5 불가리
호텔 파리의 '세르펜티 스위트'
(Serpenti Suite) 내부. 불가리
호텔 & 리조트 그룹은 올해
'뱀'의 해를 맞이해 변화와 부활을

(Serpenti Suite) 내부. 불가리 호텔 & 리조트 그룹은 올해 '뱀'의 해를 맞이해 변화와 부활을 상징하는 브랜드의 아이콘인 세르펜티 컨셉트로 단장한 특별한 스위트룸을 전 지점에서 선보였다. 각 호텔에 단 하나의 세르펜티 스위트만 존재한다.

6 세르펜티 스위트의 육실 모습

7 풍요로운 식재료를 바탕으로 니코 로미토(Niko Romito) 세프 마법 같은 터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선데이 브런치는 불가리 호텔 파리의 시그너처 레스토랑 일 리스토란테(Il Ristorante – Niko Romito)에서 만날 수 있다. 우아한 '지노리' 식기에 나오는 메인 코스 말고도 치즈와 각종 햄, 디저트 등을 따로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부페 센션이 마련되 있다. **8 불가리 호텔 파리의**

1,300m² 면적의 아름다운 스파 공간에 있는 수영장(25m 길이)
모습. 대추야자와 과일, 커피,
허브티 등의 간식을 무상으로
즐길 수 있다. 9개의 스파
트리트먼트에서는 벨풍텐, 111
스킨 등의 브랜드 제품을 활용한
뷰티 케어를 받을 수 있다. ※ 1-
이미지 제공_Bulgari Hotel Paris
Photo by 고성연(파리 현대 최진)



고 차분하게 매력을 발산하는 느낌이다. 자세히 들어 보면 소품이나 조명 하나도 20세기를 수놓은 조 폰티 (Gio Ponti)와 카를로 스카파(Carlo Scarpa) 같은 거장들의 훈이 담긴 작품이지만 말이다. 호텔 공간을 마주 했을 때 시선을 절로 고정시키는 '잇 아이템'은 아무래도 로비의 은은한 실크 벽지를 배경으로 걸린 커다란 회화 작품이다. 묘한 눈빛을 한 여인의 초상화인데, 2022년 2월 2일에 별세한 이탈리아 배우 모니카 비티 (Monica Vitti)를 그린 화가 안페이밍(중국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다)의 작업이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거머쥔(1964년) 영화 <붉은 사막>에서 보여준 강렬한 존재감이 아직도 생생해 "차오 (ciao)"라고 인사를 건네야 할 것 같은 그림 속 그녀는 이탈리아의 경제적 황금기였던 1960년대를 반영하듯 큼지막한 불가리 목걸이를 차고 있다. 그녀의 초상 아래 깔려 있는 대리석 바닥은 르네상스의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로마의 카피돌리오 광장에서 영감받은 별 모양 패턴으로 수놓여 있다.

공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듯한 샤워기의 놀라운 성능이랄지, 타월지 소재의 육조용 베개, 몸시도 기분 좋은 감촉의 가볍고 포근한 실내화 등은 세심함의 미학을 일깨워준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웬만한 이슈가 아니면 대면할 필요 없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디지털 컨시어지'는 물론 밤이면 허브 티를 담은 보온병을 거실 탁자에 놓아두는 '우렁 각시' 같은 웨니스 서비스도 작은 감동을 더해준다. 이 같은 '디테일의 차이'는 미식에서도 확인해 드려 난다. 미슐랭 3스타 세프 니코 로미토(Niko Romito)가 이끄는 일 리스토란테(I Ristorante – Niko Romito)에서는 이탈리아의 풍미를 살리되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창조한 차원 높은 요리를 만날 수 있는데, 조식만 해도 1시간을 즐겨도 모자랄 듯 풍부하다. 일요일에 머무른다면 '환상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선데이 브런치'를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매듭 모양으로 짧은 노디니 치즈, 룸바르디아 지역의 전통 달 절임 등 아름다운 이탈리아나 브랜드 제품을 막걸기 느림 기획이나

왠지 뇌쇄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로비나 라운지와 달리, 전반적인 객실 디자인은 ‘홈 스윗 홈’의 감성이 느껴진다. 전 세계 불가리 호텔의 디자인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안토니오 치테리오(Antonio Citterio)와 파트리샤 비엘이 함께 이끄는 건축 스튜디오 ACPV가 맡았는데, 균형미 있는 가구부터 정갈히 소독된 담요, 부드럽고 가벼운 실내화에 이르기까지 산뜻한 우아함과 품격이 곳곳에 배어 있다. 특히 물 입자가 곱디고와 모 수많은 럭셔리 호텔이 포진하고 있는 도시지만, 이처럼 ‘품격 있는 집’을 연상시키는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인테리어와 정감 어린 서비스, 그리고 풍요로운 이탈리언 식도락의 정수를 품은 불가리 호텔 파리의 차별된 매력은 높은 인기의 이유를 증명한다. 명품 브랜드의 라이프스타일 사업 확장에서 단연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글 고성영(파리 현지 취재)



지방시 뷰티 르 루즈 벨벳 매트
립스틱 NO4 누드 로즈 히알루론산
독립체와 시어버터 성분을 담아
건조하지 않고 어떤 피부 틴에나 잘
어울리는 차분한 로즈 컬러. 요즘
자주 손이 간다. 2.3g 5만4천원대.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신정임

Editor's Pick

계절의 변화가 시작된 지금, 완벽한 뷰티 큐레이션을 제안한다.
탄력 있는 피부와 가을 메이크업, 그리고 향기까지 더한 이달의
뷰티템 10. PHOTOGRAPHED BY YOUN JI YOUNG



FRESH EYES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인텐시브 링클스팟
트리트먼트 A+ 눈가와
팔자주름, 가로세로
목주름 등 깊은 주름에
효과적이다. 심지어
기미 케어까지 가능하니
이름값 하는 느낌.
20ml 16만3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김하연

NEW COLOR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인텐시브 링클스팟
트리트먼트 A+ 눈가와
팔자주름, 가로세로
목주름 등 깊은 주름에
효과적이다. 심지어
기미 케어까지 가능하니
이름값 하는 느낌.
20ml 16만3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김하연

FLORAL MIST

로이비 베르가못 앤 화이트로즈 퍼퓸드
미스트 데일리 리프레셔로 활용하기
좋은 가벼운 향수 미스트. 은은한 플로럴
향이 피부를 산뜻하게 감싸는 것 같은
기분을 준다. 120ml 2만5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신정임



디올 프레스티지 르
마이크로 세럼 드 로즈 이으
액티베이티드 3백60도로
돌아가는 멀티 펄
애플리케이터를 장착한 아이
세럼 20ml 37만4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성정민

CUSHION CASE

겔랑 빠뤼르 골드 쿠션 케이스 #르 크로코
겔랑의 아이코닉한
립스틱을 재해석한 쿠션 케이스로 레드 컬러에 골드 스터드
디테일이 소장 유크를 불러일으킨다. 케이스 4만5천원대, 리필
14.5g 8만5천원대. 문의 080-343-95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센녹 헤어 퍼퓸 미스트 슬리핑
로즈 히알루론산, 콩 단백질
등을 함유해 손상 모발 케어에
탁월하다. 오일증과 수분증이
섞이도록 흔들어줄 것. 60ml
2만4천원. 문의 1566-2506
_by 에디터 김하연



RALPH LAUREN

랄프 로렌 컬렉션 스토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02 3467 6560